

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김한샘*

《차 례》

1. 머리말
2. 국어 파생어 교육의 현황
3. 파생어 교육 개선 방안
4. 맺음말

〈요약문〉

이 연구는 파생어에 대한 교육과정 및 문법 교과서의 기술 내용 변천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 영역과 통합된 검정 문법 교과서의 실제 구현 양상을 분석하니 전통적인 파생어 관련 기술의 틀이 깨지고 소략해진 반면 교수·학습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5차에서 7차까지 국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파생어 관련 지식의 교육 내용은 6차>5차>7차의 순으로 많았고, 실제 파생어 예시의 양은 5차>7차>6차 순이었으며, 학습 활동은 7차>5차>6차 순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2012년에 발간된 4종의 검정 교과서를 교육의 체계, 범위, 완성도의 면에서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접사 간의 유기적 관계나 파생과 합성의 혼성, 다양한 어종의 접사에 대한 예시와 심화된 설명이 누락된 7차의 단점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

* 국립국어원

된 검정 교과서인 만큼 교과서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5차 교과서 이후 7종의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 활동을 분석하면서 발견된 이론의 불일치, 지식 항목의 불균형, 예시의 비전형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론적 합의와 상세범주화와 위계화를 포함하는 지식 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파생어, 단어 형성, 어근, 접사, 어휘 교육

1. 머리말

2011년에 발표된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09 교육과정)’에 학년군 단위로 세부 교육 내용이 제시되었고 2012년부터 27년만에 다시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법 영역도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문법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어휘 지식에 대한 교육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다양성’이라는 어휘 교육의 핵심어가 2009 교육과정 곳곳에 드러나 있다. 언어 생활에서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 교육 전반에 걸쳐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에 바탕이 되는 것은 문법 영역에서 다루는 어휘에 대한 기본 지식이다. 어휘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인 어휘력의 중요성은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3-4 학년군의 내용 성취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같은 학년군의 성취 기준에서도 어휘 특성의 이해가 문장 쓰기, 문학 읽기와 말하기 등 문법 외의 다른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민현식 외(2011)에서 새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가 어휘 교육의 강조라고 밝혔는데 [표 1]을 분석해 보면 집합적 어휘의 관점에서 품사, 어종, 구조가 다른 다양한 어휘군의 교육, 개별 어휘의 관점에서 맥락에 따른 어휘의 다양한 통사적, 의미적 특성의 이해와 활용

에 대한 교육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특히 독서와 문법에서 언급한 ‘한 단어를 두고 다양하게 연상어를 도출하는 활동’은 추상적으로나마 기존의 어휘 교육 내용과 더불어 그동안 누락되었던 범주 결합 가능성과 관련한 연접 범주 관계(colligation), 개별 어휘의 결합 가능성과 관련한 연어 관계(collocation) 등 어휘의 횡적 결합을 포함하게 되어 어휘 교육 내용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등 계열 관계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어휘 지식 내용에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발전한 부분이 있는 반면 교육 과정을 기술하는 메타언어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말, 낱말, 단어, 어휘 등의

[표 1] 2009 국어과 교육과정의 어휘 교육 관련 성취 기준

학년군	구분	교육 내용
1-2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3-4 학년군	학년군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며,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
	내용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5-6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을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중 1-3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u>단어</u> 형성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u>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국어 인식 능력</u>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양상을 자각하고 단어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u>단어</u>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단어</u>들을 품사별로 분류해 보는 경험은 국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어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서와 문법	내용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단어</u>의 품사 이해를 통해 같은 <u>단어</u>라도 <u>다양하게 표현하고 활용</u>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파생어, 합성어를 통하여 <u>단어</u>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새로운 <u>단어</u>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분보다는 전체 속에서 <u>단어</u> 형성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한 <u>단어</u>를 두고 <u>다양하게 연상어</u>를 도출하는 활동을 통해 <u>단어</u>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여 <u>어휘</u>의 창의적 사용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언어 단위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표 1]의 기울인 글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 학년군을 아울러 ‘낱말’이 5회, ‘단어’가 12회, ‘어휘’가 7회 사용되었다. 얼핏 보면 1-6 학년군에서는 고유어인 ‘낱말’을, 중 1-3 학년군 이후에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 단계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 1-2 학년군에서는 ‘다양한 어휘’, 3-4 학년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낱말’, 5-6 학년군에서는 다시 ‘다양한 어휘’, 중 1-3 학년군에서는 ‘다양한 단어’라고 표현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이 용어를 섞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낱말’이라는 고유어 용어와 ‘단어’와 ‘어휘’라는 한자어 용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휘’의 개별적인 개념과 집합적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중요도는 교육 단계마다 반복하여 제시되는지의 여부로 드러난다. 초·중·고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핵

심적인 지식은 품사와 단어 형성의 두 가지이다. 3-4 학년군에서 제시된 ‘다양한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 중 1-3 학년군의 ‘품사의 개념과 특성 이해’, ‘독서와 문법’에서 어휘 표현 및 활용의 전제로 언급한 ‘단어의 품사 이해’는 모두 품사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3-4 학년군에서 제시된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 중 1-3 학년군의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해’, ‘독서와 문법’에서 파생어와 합성어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 ‘단어의 형성 과정’은 단어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품사와 단어 형성 모두 국어 이론에서는 형태론에서 다루는 지식인데 개별 품사에 대한 지식이나 품사 범주 체계가 비교적 고정적인 데에 반해 단어 형성은 가변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단어 형성 관련 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을 축소하여 가르치는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하다. 청소년 집단의 신조어 생성을 고려할 때 단어 형성에 대한 지식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단어 형성 관련 교육 내용 중 파생어에 집중하여 문법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파생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어 파생어 교육의 현황

교육 현장에서 파생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법 교과서 통합 편찬이 이루어진 이후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분석한다. 문법 교과서 편찬 방식과 과목 구성이 변화한 시점을 경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1. 1종 교과서 시기의 파생어 교육

1종 교과서 시기의 파생어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단어

형성에 대한 기술 체계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제5차 교육과정(이하 5차)에서 ‘합성법’, ‘파생법’이라는 형태론적 과정을 세부 단원에 표시한 데에 반해 제6차 교육과정(이하 6차)에서는 형태론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어휘 부류를 강조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이하 7차)에서는 아예 형성된 어휘 부류의 명칭만 제시하였다. 5차에서는 단어 형성의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우리말의 단어 형성이 파생법과 합성법의 두 방법에 기대고 있다고 하여 폐쇄적인 기술 방식을 택한 반면 6차에서는 절차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단어 형성 결과의 유형 분류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7차로 넘어가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한자어 형성에 대한 목차가 사라진 것이다. 5차, 6차와 같이 한자어 단어 형성에 대한 장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것은 고유어와는 다른 한자어 형성을 교육하는 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최호철(2009)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래어 형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어종에 따라 고유어의 형성, 한자어의 형성, 외래어의 형성과 같은 체계를 갖출 것이 아니라면 한자어의 형성만 따로 다루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한자어 형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7차로의 체계상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한자어의 형성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많이 쓰이는 한자어 복합어를 파생어와 합성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시했어야 한다는

[표 2] 5~7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의 단어 형성 기술 체계

교육과정	해당 단원	세부 목차
제5차	II. 단어 3. 단어의 형성	(1)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2)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3) 한자에 의한 단어의 형성
제6차	III. 단어 2. 단어의 짜임새 (2) 단어의 형성	① 파생어의 형성 ② 합성어의 형성 ③ 한자어의 형성
제7차	3 단어 1. 단어의 형성	(1) 파생어 (2) 합성어

아쉬움이 있다. 핵심 내용인 본문에서 고유어 접사만 다루고 있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접사 및 파생어가 누락된다는 문제가 있다.

논의의 핵심인 파생어로 범위를 좁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다음 절에서 기술할 검정 교과서 체제까지 통틀어 5차의 파생어 형성 관련 교육 내용이 가장 범위가 넓고 많은 예를 포함하고 있다. ‘파생법에 의한 단어 형성’ 단원에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접사의 위치에 따른 구분을 기준으로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를 기술한 후 ‘합성법에 의한 단어 형성’에서 합성어가 다시 파생법에 의해 파생어가 되는 절차를 설명했으며, ‘한자어에 의한 단어 형성’에 한자어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을 포함했다. 5차의 파생어 교육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접미사의 표기 부분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파생 접미사로 인정하지 않는 (1)과 같은 어형을 접미사로 인정했다. 특히 한 동작의 수단이 되는 기물을 의미하는 (1ㄴ)의 ‘-애’의 예는 동사의 원형을 괄호 안에 밝혀 적었다.

- (1) ㄱ. -웅(지붕), -아지(모가지), -앙-(까망다), -우(마주)
 ㄴ. -애: 마개(막애), 열개(엷애)

받침 있는 어근 아래에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붙을 때에는 원형을 밝힐 수도 있고 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을 수도 있다는 5차의 설명 방식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6차 이후 교과서에서는 (1)의 어형이 결합한 단어들을 아예 파생어로 보지 않는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99년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 위 (1)의 예들이 접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1996년에 초판이 발행된 6차의 영향으로 보인다. (1ㄱ)은 아예 누락되어 있고 (1ㄴ)의 ‘-애’만 옛말로 등재되어 있다. 파생과 합성이 엮히는 경우는 5차에서 합성어의 파생을 기술하고 6차에서 이를 포함하고 파생어의 합성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가 7차에는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6차에서는 예시로 든 파생어의 양이 현저하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접사가 붙어 파생된 단어의

품사의 범주도 5차에 비해 적다. 형용사 파생 접두사, 부사 파생 접미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누락되었다. 한편 5차, 6차에서는 ‘-씨(氏)’, ‘-가(哥)’와 ‘-님’이 같은 계열이라고 기술하여 어종이 다른 접미사를 함

[표 3] 5~7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의 파생어 기술

교육 과정	해당 단위	기술 내용	본문에 제시된 접사
제5차	II 단어 3. 단어의 형성 (1)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 어근과 접사 ○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명사로 파생됨 - 동사로 파생됨 - 형용사로 파생됨 - 부사로 파생됨 - 접미사의 표기	맨-(맨손), 들-(들볶다), 사-(시퍼렇다) -웅(지붕), -개(뒹개), -들(사람들), -아지(모가지), -님(선생님), -(으)ㄴ(슬픔), -이(벌이), -기(쓰기), -애(마개), -치-(놓치다), -하-(위반하다), -히-(밝히다), -거라-(철렁거리다), -이-(먹이다), -답-(학생답다), -롭-(슬기롭다), -왕(까맣다), -우(마주), -이(많이)
	(2)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3) 한자에 의한 단어의 형성	○ 합성어의 파생 · 한자어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이(해돋이, 땀이치기, 다달이), -음(품값음), -기(땀이치기), -씨, -가, -적(인간적)
제6차	III. 단어 2. 단어의 짜임새 (2) 단어의 형성	○ 어근과 접사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햇-(햇밤) 군-(군소리), 짓-(짓누르다)
	① 파생어의 형성 ② 합성어의 형성 ③ 한자어의 형성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 합성어의 파생 · 파생어의 합성 · 한자어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이(놀이), -쟁이(멋쟁이), -리-(물리다) -이(여달이) -개(병마개) -씨, -가, -적(인간적)

제7차	3 단어 1. 단어의 형성 (1) 파생어	○ 어근과 접사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치-(치솟다) 군-(군말), 짓-(짓구기다), 새-/사-(새빨갳다/시뻘겟다), 헛-(헛고생) -꾼(구경꾼), -(으)ㄴ(가르침), -하-(공부하다), -거리-(꿈틀거리다), -롭-(평화롭다), -아-(먹이다), -히-(잡히다), -리-(살리다), -기-(웃기다), -우-(깨우다), -추(낮추다), -이(높이)
-----	------------------------------	--	---

게 설명하였다. ‘같은 계열’이라는 설명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관련이 있는 접미사를 같이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였다. 7차로 오면서 기술이 간단해진 대신 6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생어의 예시가 늘어났지만 접사 간의 유기적 관계나 심화된 설명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교과서에 제시된 파생어 관련 학습 활동의 내용을 보인 것이 [표 4]이다. 5차와 6차의 학습 활동은 개념의 정리와 지식의 확인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표 3]에 드러나듯이 6차에서 교육 내용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의 양도 대폭 줄었다. 6차에서 ‘학습 활동’과 ‘단원의 마무리’를 따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활동을 나누어 배치하였을 뿐 활동 자체의 성격은 같다. 7차의 학습 활동은 문법 지식에 대한 탐구와 학습 내용과 실생활의 연계를 반영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6차의 학습 활동에 비해 진일보하였다. 다만 학습 활동에서 한자어 접미사 중 빈도가 높은 ‘적(的)’, ‘성(性)’을 두 가지를 다루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심화 활동인 ‘가꾸기’까지 다루기 어려워 실제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종의 접사를 접할 기회를 얻기는 힘들다.

[표 4] 5~7차 교육과정 '문법' 교과서의 파생어 관련 학습 활동

교육 과정	활동 유형	활동 내용
제5차	연습 문제	<p>○ 다음 단어를 어근과 접사로 분석하라.</p> <p>○ 아래 접두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말을 아는 대로 들어 보라.</p> <p>○ 아래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아는 대로 들어 보라.</p> <p>○ 다음 문장에서 옳바르지 못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찾아 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p> <p>○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에나 한자어나 외래어로 된 전문·기술 용어를 고유어로 바꿀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조사해 보라.</p> <p>○ 아래 합성어의 파생 방식을 설명해 보라.</p> <p>○ 아래 한자는 접두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글자이다. 이들이 접두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자어를 들고, 한편 그것이 단순한 단어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보기도 들어 보라.</p> <p>○ 아래 한자는 접미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글자이다. 이들이 접미사로서 기능을 하는 한자어를 들고, 한편 그것이 단순한 단어의 구성으로 쓰이는 보기도 들어 보라.</p>
제6차	학습 활동	<p>○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들에서 파생어와 합성어를 찾아 그 짜임새를 살펴보자.</p> <p>○ 다음과 같은 파생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들을 찾아보자.</p> <p>○ 다음 단어들의 짜임새를 살펴보고,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보자.</p>
	단원의 마무리	<p>○ 다음 단어를 각각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보자.</p>
제7차	탐구	<p>○ 다음 예로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단어들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가려내어 보자. - 각각의 접두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사하여 발표하여 보자. - 위의 예에서 품사가 변한 단어를 찾아보자. <p>○ 다음 자료로 파생어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단어들에서 접미사를 분리하여 보자. - 어감이 어색한 말 앞에 별표를 하여 보고, 자신의 판단과 다른 친구들의 판단을 비교하여 보자.

제7차	가꾸기	<p>○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의 오용 사례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여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자료의 (가)~(자)를 바탕으로 ‘-적(的)’, ‘-성(性)’, ‘-답다’, ‘-장이’, ‘-쟁이’, ‘-둥이’, ‘-내기’, ‘-배기’, ‘-빼기’의 의미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파생어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 위 (가)~(자)와 유사한 오용 사례들을 주변에서 더 찾아보자. <p>○다음 만화를 바탕으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문장에서 ‘-음’의 문법적, 의미적 기능은 무엇인지 각자의 의견을 말하여 보자. - 이러한 말투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	-----	---

2.2. 검정 교과서 체제의 파생어 교육

5차에서 7차까지 국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파생어 관련 지식의 교육 내용은 6차>5차>7차의 순으로 많았고, 실제 파생어 예시의 양은 5차>7차>6차 순이었으며, 학습 활동은 7차>5차>6차 순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같은 기준으로 2012년에 발간된 4종의 검정 교과서는 교육 내용의 체계, 범위, 완성도의 면에서 기존의 국정 교과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4종 모두 7차의 체계를 따라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접사 간의 유기적 관계나 파생과 합성의 혼성, 다양한 어종의 접사에 대한 예시와 심화된 설명이 누락된 7차의 단점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검정 교과서인 만큼 교과서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우선 기술의 체계성을 살펴보면 4종의 교과서 중 어떤 교과서도 명사 파생 접두사, 동사 파생 접두사, 형용사 파생 접두사, 명사 파생 접미사, 부사 파생 접미사, 동사 파생 접미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를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파생어의 품사를 가장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미래엔(이하 ‘미래’)으로 부사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를 빼고는 모두 제시했으며 본문에 제시한 파생어

의 양도 가장 많았다. 비상교육(이하 ‘비상’)의 교과서는 동사 파생 접두사, 부사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를, 천재교육(이하 ‘천재’)의 교과서는 형용사 파생 접두사, 동사 파생 접미사를 누락했다. 지학사지학사(이하 ‘지학’) 교과서의 본문에서는 품사가 동사, 형용사인 파생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어종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인 교과서는 ‘비상’이었다. 나머지 교과

[표 5]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의 파생어 기술

교과서	해당 단원	기술 내용	본문에 제시된 접사
미래엔	II 우리말 구성 요소의 이해 2. 단어 (1) 단어의 구조와 단어 만들기	○ 단어의 구조와 단어 형성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 단어 만들기	참-(참깨), 뒤-(뒤섞다), 새-/시-/셋-/잇-(새빨강다/시뻘겟다/셋노랑다/잇누렇다) -꾸러기(잠꾸러기), -스럽-(어른스럽다), -하-(사랑하다), -이/-히/-리/-기-(쌓이다/먹히다/팔리다/안기다) -내기(새내기), -이(도우미)
비상교육	IV 국어와 얹 3. 단어 02 단어의 형성	- 어근과 접사의 개념 - 파생어의 개념 - 접두사/접미사의 개념 - 종합 합성어	맨-(맨손), 군-(군소리), 메-(메마르다) -쟁이(멋쟁이), -리(비밀리), -이(넓이), -들(사람들), -하-(공부하다), -거라-(꿈틀거리다), -롭-(평화롭다) -이(고기잡이), -ㄱ(눈가림), -기(줄넘기), -개(이쑤시개)
지학사	3 국어의 이해와 탐구 02 단어 (1) 단어의 형성	- 파생어의 개념 - 접두사/접미사의 기능과 의미	헛-(헛기침), 개-(개살구) -질(바느질), -이(많이)

천재 교육	III 국어의 구조 ② 단어 (1) 단어의 형성	- 파생어의 개념 - 접두사/접미사의 기능과 의미	되-(되살리다), 맨-(맨몸), - 군(군말), 헛-(헛걸음) -이(놀이), -스럽-(어른스럽 다), -보(피보), -히(가만히)
----------	----------------------------------	-----------------------------------	---

서들이 고유어 접사만을 제시한 데에 반해 ‘비밀리(秘密裡)’의 예를 들어 한 자어 명사 파생 접미사 ‘-리(裡)’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빈도가 높고 대명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들’을 소개하였다. 교과서별 기술 내용과 범위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7차의 학습 활동에서 시도한 실생활과의 연계를 본문에 가장 잘 살린 교과서는 ‘미래’였다. ‘단어 만들기’라는 소절을 따로 두고 새내기, 도우미 등의 예를 들어 파생법에 의한 신어를 소개하고 학습 활동에서도 신어 생성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예로 든 두 개의 파생어가 ‘새내기’는 어근 없이 접사만 결합한 구성이라는 면에서, ‘도우미’는 ‘-이’라는 접사의 형태가 표기에 드러나지 않는 예외라는 점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합 방식이나 표기가 전형적인 것을 예로 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표 6]에 드러나듯이 모든 교과서가 탐구 학습의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어와 합성어의 분류, 신어의 구조와 생성 원리, 파생과 합성이 혼성된 복합어에 대한 탐구 과제가 주를 이루는데 5차-7차의 본문과 학습 활동에서 제시한 내용을 ‘탐구’라는 방법적 측면에서 다시 잘 살렸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탐구’(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와 이와 연계된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탐구와 적용’(국어의 분석과 탐구, 국어 지식의 적용,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이 구현된 것이라 하겠다. 본문에 많은 내용을 담은 만큼 ‘미래’는 학습 활동이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그친 반면 ‘비상’은 파생어와 합성어의 분류, 신어의 구조와 생성 원리, 파생과 합성이 혼성된 복합어를 학습 활동에서 고루 다루

었다. ‘비상’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구성 자체가 ‘활동하기’라는 탐구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교과서의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 검색’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5차~7차 교과서나 다른 검정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종합 합성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표 6]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의 파생어 관련 학습 활동

교과서	활동 유형	활동 내용
미래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단어들을 바탕으로 단어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 탐구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단어들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보자. ○ 다음 새말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활동을 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 ㄴ의 단어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 말해 보자. - ㄱ, ㄴ의 단어들이 사전에 표제어로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 자신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말의 예를 들어 보자.
비상	활동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물음에 답하며, 단어의 형성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탐구 과정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려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각각 넣어 보자. - 다음 단어들을 형태소로 분석해 보자. - 형태소로 분석한 단어들을 다음 표에 분류해 보자. - 접사를 찾아 정리해 보고,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쇠’를 합성어로 보는 견해와 파생어로 보는 견해를 찾아 정리해 보자. - ‘구두쇠’를 어떻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 ○ 다음 물음에 답하며, 종합 합성어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어들을 형태소로 분석해 보고,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여 보자. - 위를 참고할 때 이 단어들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탐구해 보자. - 형태소나 단어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발표해 보자.

지학	적용하기	○ 다음 파생어를 대상으로 표의 빈칸을 채워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접사의 기능을 확인해 보자.
	답아 보기	○ 단어의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빈칸을 채워 보자.
	펼쳐 보기	○ 다음 단어들을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직접 구성 성분 가운데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명사 '신'과 동사 '신다'의 관계에 대해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 명사에서 동사가 만들어진 것과 동사에서 명사가 만들어진 것 중 어느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단어 형성 방법이 파생과 합성뿐이라고 한다면 '신'과 '신다'의 관계는 어느 쪽에 가까울지 생각해 보자. - 위와 비슷한 단어의 짝을 생각해 보자.
천재	원리 익히기	○ 다음 글을 읽고, 단어의 형성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 이 글에서 파생어를 모두 찾아 구조를 분석해 보자. - 위에서 분석한 파생 접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다른 파생어들을 더 찾아보자. - 다음 단어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해 보자. ○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신어의 형성법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 다음은 새로 들어온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다. 신어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각 단어의 형성법을 알아보자.
	통합 학습	○ 다음 글을 읽고, 단어의 구조와 신어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3) 우리 학교의 동아리 이름을 조사하여 그 이름의 단어 형성법을 분석해 보자. 새로운 동아리를 만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지 구상해 보고, 그 이름의 단어 형성법을 말해 보자.

‘지학’은 교과서 본문의 설명이 간단한 대신 적용하기, 답아 보기, 펼쳐 보기, 엮어 보기 등의 단계적 학습 활동을 제시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천재’는 학습 활동에서 국어 교육의 영역 통합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구현하였다. 다른 교과서들이 전부 개별 단어를 대상으로 한 탐구 학습을 시도한 반면 ‘천재’는 텍스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단어 형성 관련 탐구 주제를 제시했다.

이런 방식은 7차의 품사 관련 학습 활동에서도 도입된 것인데 ‘천재’에서는 ‘목표 학습’에서 이를 단어 형성에 적용하고, 나아가 ‘통합 학습’을 통해 ‘독서와 문법’이라는 교과서의 특성에 맞게 텍스트에 대한 읽기(글의 요약)와 단어 형성(파생과 합성의 구분)이라는 문법 지식의 학습을 함께 제시하였다.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면서 파생어 어휘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국어 생활에서 접하는 파생어 어휘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등 교수·학습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분명 발전했지만 ‘독서와 문법’으로 영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축소되었고 국정 교과서에서부터 지속된 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 파생어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 파생어 교육 개선 방안

3.1. 파생어 교육 내용의 이론적 합의

파생어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접사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이 있다. 5차, 6차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파생어를 만드는 형식형태소만을 접사로 보고 단어 굴절에 나타나는 형식형태소인 어미와 변별하고 있다. 이는 남기심·고영근(2011), 고영근·구본관(2008)과 맥을 같이한다. 반면 7차에서는 접사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파생 접사와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굴절 접사를 하위 분류로 제시했다. 이는 이익섭·채완(1999)의 체계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정 교과서에 넘어오면서 접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교과서는 ‘천재’뿐이다. ‘천

재'에서는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접사를 파생 접사, '-다'처럼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미를 굴절 접사라 설명하였다. 나머지 3종의 교과서에서는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요소를 접사라고 하여 접사가 단어의 형성을 구성 성분이라는 것을 언급했을 뿐이다. 단어 형성과 용언의 활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접사의 범위를 좁게 볼 것인지 어근과 결합하는 형식형태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접사의 범위를 넓게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 및 범위 설정은 파생어 교육의 기본인 만큼 이론의 정합성과 교수·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성낙수(2004)에서 지적한 대로 문법 교과서가 특정한 이론에 치우치거나 편협한 개인의 견해를 도입한다면 혼란이 생길 것이다. 검정 교과서의 자율성은 학습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황화상(2012)에서는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제외하고 단어 형성을 교육할 수 있으며 형태론 교육의 영역은 단어의 분석, 단어의 형성, 단어의 굴절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배제하고 파생어를 설명하는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어법과 용언의 활용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은 받아들일 만하다. 파생어를 만드는 형식형태소만을 접사로 보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¹⁾.

파생과 합성의 혼성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술이 필요하다. 파생과 합성이 혼성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2) ㄱ. 옷놀이, 김구이
 ㄴ. 여닫이, 높낮이
 ㄷ. 해돋이, 떡볶이

모두 접미사 '-이'가 결합한 3음절 복합어인데 (2ㄱ)은 '놀이', '구이'라는 파

1) 정병철(2012)에서 접사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형태소'라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생어가 각각 ‘윗’, ‘김’과 결합한 합성어이고, (2ㄴ)은 ‘여닫다’, ‘높낮다’라는 합성어에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2ㄷ)이 파생과 합성의 혼성인 것은 분명하나 그 순서와 구조를 파악하는 관점은 열려 있다. 5차~7차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2ㄷ)과 같은 복합어를 다루지 않았으나 검정 교과서에서는 ‘비상’과 같이 ‘고기잡이’, ‘눈가림’, ‘줄넘기’, ‘이쑤시개’를 합성어라고 설명한 경우도 있고, ‘천재’처럼 ‘고기잡이’는 ‘고기(를) 잡- + -이’의 구조로도 ‘고기+잡이’의 구조로도 볼 수 있다고 열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에 혼란을 더하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기잡이’를 ‘고기’라는 명사에 무엇을 잡는 일을 뜻하는 ‘잡이’라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 단어의 구조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정병철(2012)에서 강조한 접사, 어근, 단어 사이에 나타나는 불분명한 경계 현상 때문이다. ‘비상’에서도 도입한 ‘종합 합성어’는 ‘time-killing’, ‘company-operated’와 같이 주로 영어학에서 명사와 동사의 분사형이 결합하는 구조를 일컫는 용어인데 이를 ‘병마개’, ‘손톱깎이’와 같은 우리말의 복합어를 설명하는 데에 도입하였다. 범언어적 관점에서 비슷한 구조의 단어 부류를 일컫는 용어를 도입한 것은 신선하나 영어와 한국어의 단어 구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어의 ‘killing’, ‘operated’와 한국어의 ‘마개’는 각각 독립된 단어이지만 ‘깎이’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종합 합성어’라는 용어를 (2ㄱ)과 (2ㄷ)을 아우르는 개념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합성과 파생이 혼성된 복합어이므로 함께 다루어야 할 (2ㄴ)의 ‘여닫이’, ‘높낮이’를 ‘종합 파생어’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파생어와 합성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학문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접사의 목록은 확정되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현대어의 접사는 530개이다. 접사가 명사, 동사 등의 어휘 집합에 비해 폐쇄적인 만큼 교육용 접사의 목록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큰(-)’, ‘작은(-)’이 교과서의 문법 설명과 사전의 기술 내용이 충돌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5차에서는 ‘작은형’, 6차에서는 ‘큰형’, 7차에서는 ‘큰 집’의 예를 들어 합성어를 설명했고 이를 따라 ‘비상’에서 ‘큰형’, ‘지학’에서 ‘큰집’을 합성어의 예로 제시했다. 그런데 ‘큰(-)’, ‘작은(-)’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접두사로 기술하였다. 아래 (4)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사로 등재한 접두사 중 실질 어휘와의 의미 관계가 명확한 것들이다. (4ㄱ)은 용언의 관형사형, (4ㄴ)은 용언의 어간, (4ㄷ)은 명사, (4ㄹ)은 부사와 형태와 의미가 같은 것들이다. (3)의 ‘큰(-)’과 ‘작은(-)’은 형용사가 지니던 ‘크기’와 관련한 의미가 ‘서열’로 확장되었고 결합하는 명사의 분포가 제한적이므로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국정 교과서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합성어로 설명하던 것을 바꾸는 데에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고려해야 한다. 황화상(2012)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하였고, 박형우(2004)에서는 분포, 생산성, 자립성의 관점에서 ‘작다’, ‘크다’의 다의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학교 문법의 전통적 처리 방식을 지지했다. (4)의 예들도 같은 기준으로 접사의 자격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ㄱ. 큰「접사」((주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맏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큰고모/큰이모/큰동생.
 ㄴ. 작은「접사」((주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맏이가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작은고모/작은이모/작은동생.
- (4) ㄱ. 선(-), 잔(-)
 ㄴ. 늦(-)
 ㄷ. 걸(-), 겹(-), 먹(-), 수(-), 암(-), 줄(-), 참(-)
 ㄹ. 막(-)

3.2. 파생어 교육을 위한 지식 내용 체계화

‘독서와 문법’으로 영역이 통합된 교과서가 개발되면서 문법 교육은 지식 항목의 수와 교육 내용의 양의 두 가지 면에서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법 지식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하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더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관희(2009)에서 정리한 교육 내용의 선별과 조직에 대한 이론을 참고할 만하다. 해당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요소를 여러 변인을 고려해 선별하는 ‘범위(scope)’의 축과 교육 내용을 일정 단계에 따라 조직하기 위한 ‘계열(sequence)’의 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관규(2006)에서는 ‘학습자 중심 원리, 실제 중심 원리, 기능 중심 원리’를 문법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로 제시했고, 이병규(2006)는 국어사용에 기반이 되는 문법 사항이 무엇인지 학습자를 배제하고 국어학 연구 결과로서의 국어 구조를 기준으로 선정, 배열할 것을 주장하여 학습자 고려의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이정현(2007)은 이를 절충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결정할 때 꼭 알아야 할 국어 지식 요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반복·심화가 필요하며 더 필요한 내용을 먼저 가르치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형우(2012)와 같이 위계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도 있다.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문법 영역 내용 체계의 성취 기준을 학년군간 위계화와 위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 내용을 수평적으로 상세범주화하고 수직적으로 위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주에 대한 지식 항목을 최대한 미시적으로 나열해 재조직해야 한다. 2장에서 분석한 7종의 교과서에 등장한 파생어 관련 지식 항목은 다음과 같다.

(5) ㄱ. 어근과 접사의 개념

- ㄴ. 위치에 따른 접사의 분류: 접두사와 접미사
- ㄷ. 다양한 어종의 접사: 고유어 접사, 한자어 접사, 외래어 접사
- ㄹ. 접두사에 의한 품사별 파생
 - :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 ㅁ. 접미사에 의한 품사별 파생

- :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 ㄷ. 접사의 기능: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
- ㄸ. 접사의 결합 요소: 어근, 단어, 구
- ㄹ. 유사한 의미의 접사: 유의 관계에 있는 접사
- ㅊ. 같은 계열의 접사: 의미는 같은데 어종이 다른 접사
- ㅌ. 파생과 합성의 혼성: 합성어의 파생, 파생어의 합성

파생어 등 단어 형성과 관련한 내용은 3-4 학년군, 중 1-3 학년군,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지식이다. 현재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검정 교과서들은 (5)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므로 앞서 고등학교 문법 교육에서의 파생어 관련 지식을 분석해 보았다. 중학교 과정에서 국어, 생활 국어 등의 과목을 통해 가르쳐 온 파생어 관련 지식 항목을 (5)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6)과 같다. (6ㄱ), (6ㄴ)은 용어와 함께 지식에 대한 설명을 싣고 있고 (6ㄷ), (6ㄹ)은 학습 활동의 예를 통해 익히게끔 하였다.

- (6) ㄱ. 어근과 접사의 개념
 - ㄴ. 위치에 따른 접사의 분류: 접두사와 접미사
 - ㄷ. 접두사에 의한 품사별 파생
 - :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 ㄹ. 접미사에 의한 품사별 파생
 - :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초등학교 교과서는 중고등 교과서처럼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지향하는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모든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과정을 기술하고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한 기준이 없으므로 (5)에서 1차적으로 범주화한 교육 내용이 단계별

로 어떻게 반복, 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지식 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표 1]에서 보인 현행 교육과정의 단어 형성 관련 내용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5)의 파생어 관련 문법 지식의 위계화를 시도한 것이 [표 6]이다.

표 6. 교육과정 기반 파생어 관련 문법 지식 위계화(안)

학년군	구분	교육 내용
3-4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파생어 교육 지식 항목	○어근과 접사의 개념, 위치에 따른 접사의 분류
5-6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파생어 교육 지식 항목	○어근과 접사의 개념, 위치에 따른 접사의 분류 ○다양한 어종의 접사
중 1-3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파생어 교육 지식 항목	○어근과 접사의 개념, 위치에 따른 접사의 분류 ○다양한 어종의 접사 ○접사에 의한 품사별 파생
독서와 문법	내용 성취 기준	○파생어, 합성어를 통하여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분보다는 전체 속에서 단어 형성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파생어 교육 지식 항목	○어근과 접사의 개념, 위치에 따른 접사의 분류 ○다양한 어종의 접사 ○접사에 의한 품사별 파생 ○접사의 기능, 접사의 결합 요소, 유사한 의미의 접사, 같은 계열의 접사, 파생과 합성의 혼성

낱말 확장 방법 관련 내용 성취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군부터 파생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파생어 교육의 기초인 어근과 접사의 개념과 위치에 따라 접사가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뉜다는

것을 가르치되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현행 교과서와 같이 어근, 접두사, 접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어휘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 형성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5-6학년군에서 교육하는 다양한 어종의 어휘 중에 파생어가 있다면 구성 요소인 접사의 어종에 대해서도 익히게 될 것이다. 중 1-3학년군으로 교육 단계가 올라가면 품사의 개념을 배우게 되어 있으니 접사에 의한 파생의 결과가 다양한 품사의 단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신어의 단어 구조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어종의 접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시기를 중 1-3학년군으로 한 단계 낮출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독서와 문법’에서는 접사의 기능, 접사의 결합 요소, 유사한 의미의 접사, 같은 계열의 접사, 파생과 합성의 혼성 등 파생어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이들과 관련한 지식을 하나의 교과서에서 모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학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파생어의 양상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년군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전 단계의 지식 교육 항목이 누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맺음말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고 세부 과목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27년 만에 복수의 문법 교과서가 독서 영역과 통합된 형태로 발간되게 되었다. 검정으로 문법 교과서의 편찬 방식이 바뀌면서 문법 영역의 기술 내용 선정과 기술 체계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핵심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전형적인 예를 제시해야 한다는 교과서의 기본 기능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파생어를 포함한 단어 형성에 대한 지식은 초·중·고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교육하도록 기술한 중요한 사항

인 만큼 기존 국정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답습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5차 교과서 이후 7종의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 활동을 분석하면서 발견된 이론의 불일치, 지식 항목의 불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론적 합의와 상세범주화와 위계화를 포함하는 지식 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뒤를 이어 파생어 교육을 위한 전형적인 예는 무엇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접사를 분석한 계량적 언어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킬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 논의가 2014년부터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이 배포되고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강현화(2006) 어휘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6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민국(2011) 파생접사의 사용 양상과 생산성, 『형태론』, 13-1, 53-84.
- 김창섭(1995) 국어 파생 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65-201.
- 김정은(2003) 한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91-139.
- 김한샘(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김한샘(2010) 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63-90.
- 김한샘(2011)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단어족 분석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71-95.
- 김한샘(2013)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접미사의 생산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523-549.
- 남기심·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문금현(2010)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제6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9-135.
- 민현식·왕문용(1994)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청회 자료.
- 박형우(2004) 고유어 접두사 설정의 기준, 『청람어문교육』, 제28집, 청람어문교육학회, 391-419.
- 박형우(2012) 문법 교육과정의 학년군 간 위계화와 연계성 검토, 『문법 교육』, 17, 한국문법교육학회, 97-33.
- 서상규 외(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1차년도 결과 보고서.

-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 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제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141-160.
- 손영애(2000) 국어과 어휘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5-30.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시정곤(2006) 국어형태론에서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 『형태론』 8-2, 257-275.
- 심혜령(2007)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의 문제,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53-78.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윤구희(2009)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7-1,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187-211.
- 이광호(2009)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과 저지에 대한 계량적 연구』, 태학사.
- 이관희(2009) 문법교육 위계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05-240.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충우(1992)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대표어휘 선정, 『국어교육』 85·86, 한국어교육학회, 19-39.
- 이충우(1997) 어휘 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83-108.
- 정병철(2012) 형태소와 단어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청람어문교육』, 46, 청람어문교육학회, 513-544.
- 최정도(2009) 한자어 접미사의 생산성에 대한 소고, 『제39회 국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국어학회, 84~94.
- 최호철(2009) 『국어 문법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 황화상(2012) 형태론 교육과 교과서, 『제61차 한국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어학회, 39~57쪽.

- Bauer, L. & Nation, I. S. p(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
- McCarthy, Michael(2003) *Oxfor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 Press.
- Nation, I. S. p(2004) *A study of the most frequent word families in the British National Corpus.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Selection, acquisition, and testing*. John Benjamins.

〈Abstract〉

A Study on Vocabulary Education of Korean Derivative Words

Kim Han-saem(NIK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change process and current state, by extension, improvement plan of vocabulary education for derivative words in curriculum and grammar textbook. Examining authorized grammar textbook integrated reading textbook reveals some difference in frame of description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They introduced about just main points of education for derivative words, but on the other hand, they applied various approaches.

As a result of analysis of grammar textbooks(5th to 7th), the order of the education of knowledge of derivatives is 6 > 5 > 7, the order of amount of examples for derivatives is 5 > 7 > 6, and inquiry activities are various in order of 7 > 5 > 6. Since textbooks based on 5th curriculum, they contained theoretical inconsistency, imbalance of knowledge items. We need theoretical knowledge to include detailed information categor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methodology for staging and use of quantitative linguistic information.

Key words: derivative, word formation, root, affix, vocabulary education

이 름 : 김한샘

근무처 :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전 화 : 02-2669-9712

이메일 : hansaem@gmail.com

논문 접수 : 2013년 11월 01일

심사 완료 : 2013년 11월 25일

게재 확정 : 2013년 12월 02일